

염려하지 마라! 부정과거 명령형 마태 6:28

이에쭈쓰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것으로 뽑는다면, “산에서의 설교”다. 이 중에서도 명령과 금지에 관한 부분들은 주의를 요한다. 특별히 현재와 부정과거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들면서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어 문학에서 현재 명령형은 무엇인가를 끊임 없이, 계속해서 행하라는 주문이다. 동작이 지속성durative이 있는지 반복성iterative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의 동작을 부정과거aorist로부터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부정과거 명령은 폭 넓은 전반적인 동작 대신에 구체적이거나 특이한 동작을 주문한다는 점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동작의 시작등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마태 6:28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하라! καταμάθετε τὰ κρίνα τοῦ ἀγροῦ πῶς αὐξάνουσιν·에서 καταμάθετε (ImAoA2)가 καταμανθάνω에서 파생한 부정과거 명령형이다. 제자들이 시골의 한 지방을 거닐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쪼그마한 꽃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때에 이에쭈쓰께서 시골의 한 지방을 거니시면서 καταμάθετε 관찰하라!고 감탄하시는 말씀은 그 때 그 장소에서 그 풍경 속에 있을 때에로 국한된다. 보라! 너희들이 아직 백합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지? 들판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지금, 바라보라!, 그리고 깨달아라!는 말씀이다. 지금 백합화 곁을 지나칠 때에, 백합화 앞에서 지금 바라보기를 시작하라! καταμάθετε 부정과거 명령은 그 때, 그 장소에서 시작하는 동작에만 국한되는 명령이다.

부정과거 명령형이 나오는 다른 문장을 찾아서 부정과거 명령형의 의미를 알아보자. 누가 21:14에

θέτε οὖν ἐν ταῖς καρδίαις ὑμῶν μὴ προμελετᾶν ἀπολογηθῆναι·

그러므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기로 너희들의 마음 속에서 결심하라! (떼테 운 θέτε οὖν 그러므로 결심하라! 뜻이다. ἐν ταῖς καρδίαις ὑμῶν 엔

타이쓰 카르디아이스 휘몬 너희들의 마음들 속에서. ἀπολογηθῆναι. 아폴로게이 떼이나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μὴ προμελετᾶν(InPrA) 메이 프로멜레탄 연습 하지 않기로.) θέτε가 τίθημι 티페이미에서 온 부정과거 명령형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재판에 넘겨지는데, 자신을 방어하지 않기로 너희들 마음들 속에서 결심 하라! 방어연습 조차도 시작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서 어떠한 경우에 부정과거 명령형이 사용되었는 가를 알아보면 마태 6:28을 이해하는데 확실한 도움이 된다.

왕하2:20에 보면, 요르단 강 주변에 있는 어느 성 주민들이 와서 엘리야의 후임으로 나타난 엘리샤에게 찾아와서 이 땅은 아름다운데 물이 나빠서 죽기도 하고 추수도 잘 되지 않는다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때 엘리샤이오쓰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내용이 20절이다.

εἶπεν Ελισαιε λάβετε(AoImA2) μοι ὑδρίσκην καινήν καὶ θέτε(AoImA2) ἐκεῖ ἄλα.

엘리샤이오쓰가 말했다, 너희들은 가서 새로운 단지 하나를 나에게 가져오라(AoImA2) 그리고 너희들은 소금을 거기에다 놓아라(AoImA2)!
없는 동작, 시작해서 행해야만 하는 동작을 명령할 때에 이처럼 부정과거 명령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엘리샤이오쓰는 단지에 넣은 소금을 더럽혀진 여리고의 물에 뿌려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의 물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서, 만일 시제가 부정과거가 아니고, 현재형이면, 금지형 명령문은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즉시로 중지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시제가 부정과거 명령형이면, 금지형 명령문은 그 동작의 시작 자체를 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부정과거의 이러한 구별이 시원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문장들도 적지 않다.

이에쭈쓰께서 용서의 정신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선결 조건이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다. 마태 5:24을 읽어 보자. ἀφήμι, ὑπάγω, διαλλάσσω, ἔρχομαι 동사문이다.
ἀφεσ(ImAoA2) ἐκεῖ τὸ δῶρόν σου ἔμπροσθεν τοῦ θυσιαστηρίου καὶ ὑπάγε

(ImPrA2) πρῶτον διαλλάγηθι(ImAoP2) τῷ ἀδελφῷ σου, καὶ τότε ἔλθων (PaAoAm1) πρόσφερε(ImPrA2) τὸ δῶρόν σου.

너의 봉헌물을 그 제단 앞에 거기에다 단번에-남겨두라, 그리고 가라! 첫째로 너의 형제에게 한 번에 화해가 되어 지도록 하라! 그후 돌아와서 너의 봉헌물을 바쳐라.

이 문장에 사용된 시제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이에쭈쓰의 가르침에서 더 큰 감명을 받게 된다. 놓아두라! 화해가 되어지도록 하라!에는 부정과거 명령형이 사용되었다.

ἄφες(ImAoA2)는 부정과거 명령이기 때문에 '단 번에 놓아두라'는 뜻이다. 내가 힘들여 정성껏 준비한 봉헌물을 여기에다 놓아둘 수 있나? 당회실에 부탁할까? 회계 장로에게 부탁할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어디에 ἔμπροσθεν τοῦ θυσιαστηρίου 제단 앞에 거기에 단 번에 놓아두라!는 뜻이다.

πρῶτον διαλλάγηθι(ImAoP2) 첫 째로 한-번에-화해가-되어-지도록-하라!는 뜻이다. διαλλάγηθι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화해가 되어 지도록", 그리고 부정과거이기 때문에 "한 번에" (once and for all)라는 두 가지의 뜻이 들어 있다. 한 번 찾아 갔을 때에 화해가 되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방문해서 성사가 되겠습니까? 예전에 하무라비는 양을 훔쳐가는 도둑놈을 잡으면, 양 1마리 당 12마리로 되갚도록 하라는 성문화된 법 조항을 남겼다. 이 법규를 모세는 1마리 당 4배로 갚도록 하라!고 도둑이 갚아야 할 벌금 양을 대폭 축소해서 출에굽기서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형제에게 해를 입힌 것의 4배는 가지고 방문해야 화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 제물을 올린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선결 조건은 곧 용서의 정신, the spirit of forgiveness이다. 한 번에 화해가 되어 지도록 한다는 뜻은 형제가 자신을 용서해 주도록 화해하라는 뜻이다. 형제가 자신을 용서해 주도록 화해하는 것이 하느님께 제물을 올리며 예배를 드리는 자의 선결조건이다. 이러한 가르침에 사용된 동사가 부정과거 명령형이다.

θησαυρίζω 떼이싸우리조라는 동사가 나오는 마태 6:19절을 읽어 보자.

Μὴ θησαυρίζετε(ImPrA2) ὑμῖν θησαυροὺς ἐπὶ τῆς γῆς, ὅπου σῆς καὶ βρῶσις ἀφανίζει καὶ ὅπου κλέπται διορύσσουσιν καὶ κλέπτουσιν.

옷 좀나방이와 부식함이 파괴하는 곳, 도둑들이(κ) 뚫고 들어와서(δ) 훔쳐가는(κ λ) 곳, 지상에다 너희들을 위해서 보물들을 비축하지 마라, (마태 6:19)

비축하다 θησαυρίζετε는 현재형이다. 현재형은 무엇을 뜻하는가? 교통 순경이 stop!하고 명령하면 운전하는 것을 즉시로 멈춰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에쭈쓰께서 현재형 명령형을 사용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하늘이 아닌 지상에다가 그들의 보물들을 저축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형을 사용하셨다. 너희들을 위해서 땅에다 저축하는 행위를 지금, 당장에 중단하라!는 의미다.

여러분 중에 더러는 예수님께서서는 아람Aramaic어를 사용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그리스어 문법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깊이 파 해치며 설명해도 되는 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람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에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번역하는데 성찰을 다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쭈쓰의 가르치심은 아람어로 발언이 되었다면, 반면에 글로는 이에쭈쓰의 가르침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다. 이 책이 신약성경이다.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이에쭈쓰의 가르치심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그리스어를 깊이 공부하는데 성찰과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οὐ δύνασθε(IdPrM2) θεῷ δουλεύειν καὶ μαμωνᾶ.

너희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또한 제물을 위해서 섬길 수가 없다. (마태 6:24)

Διὰ τοῦτο 이런 이유 때문에, λέγω ὑμῖν.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μὴ μεριμνᾶτε(ImPrA2)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τῆ ψυχῆ ὑμῶν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τί φάγητε 무엇을 먹을 것인지, [ἢ τί πίητε 무엇을 마실 것인지,] μηδὲ τῷ σώματι ὑμῶν 심지어는 너희들의 육체를 위해서, τί ἐνδύσῃσθε(SuAoM2) 무엇을 입어야 할지. οὐχὶ ἡ ψυχὴ πλεῖον ἐστὶν τῆς τροφῆς 영혼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καὶ τὸ σῶμα τοῦ ἐνδύματος; 그리고 몸이 옷보다 더...? (마태 6:25).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심지어는 너희들의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할지, 염려하지 마라! 영혼이 음식보다 그리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이에쭈쓰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줄 아시고 계신다. 그래서 $\mu\eta\ \mu\epsilon\rho\iota\mu\nu\tilde{\alpha}\tau\epsilon$ (ImPrA₂) 현재 명령형을 사용해서, 지금 너희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지금 중단하라!고 주문하셨다.

생명 대신에, 영혼과 음식, 영혼과 마실 것을 대비해서 번역했는데, 그 이유는 영혼과 관련해서 제사법으로 제한해 놓은 먹고 마시는 유대교의 제사법과 관련된 모든 음식들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가르침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마태 6:34에서는 그러면 왜 현재형을 사용하지 않고 부정과거를 사용했느냐? 동사 $\mu\epsilon\rho\iota\mu\nu\acute{\alpha}\omega$ 가 나오는 34을 읽어 보자.

$M\eta\ \omicron\upsilon\tilde{\nu}\ \mu\epsilon\rho\iota\mu\nu\eta\sigma\eta\tau\epsilon$ (SuAoa₂)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epsilon\iota\varsigma\ \tau\eta\nu\ \alpha\upsilon\tilde{\rho}\rho\iota\omicron\nu$ 내일에 대해서, $\eta\ \gamma\acute{\alpha}\rho\ \alpha\upsilon\tilde{\rho}\rho\iota\omicron\nu\ \mu\epsilon\rho\iota\mu\nu\eta\sigma\epsilon\iota\ \acute{\epsilon}\alpha\upsilon\tau\eta\varsigma$ 내일이 그 자체를 염려할 것이기 때문에. $\acute{\alpha}\rho\kappa\epsilon\tau\omicron\nu\ \tau\eta\ \eta\mu\acute{\epsilon}\rho\alpha\ \eta\ \kappa\alpha\chi\iota\alpha\ \alpha\upsilon\tilde{\tau}\eta\varsigma$. 그 날은 그 날의 악함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그 자체를 염려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은 그 날의 악함으로 충분하다.

마태 6:34에서 이에쭈쓰는 염려말라는 제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염려해 온 것은, 이 결론과 함께 끝나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쭈쓰님의 지상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셨던 그 결과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미래와 관련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셨다.

지금까지는 이에쭈쓰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점과, 이에쭈쓰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갈아 앉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에쭈쓰님께서 복음의 확장이 닦아오는 그 때, 그 앞으로는 다시는 염려하는 것 자체를 시작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일이 내일 그 자체를 돌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그리스어의 부정과거 명령과 현재 명령을 비교하면서 뽑아 내 이 설교의 중요한 점은 무엇 보다도 초대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어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고 감명 받았고 가르침 받았고 영감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던 그 실지 값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을 발굴해 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보다 더 높은 신앙을 얻으려면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여행을 다녀옵니다. 중동을 돌아보고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 봐야 예수님도 제자들도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 봐야 물 위를 걷고 다니는 사람들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대 교회의 영적인 깨달음 그 실지 값에 가장 가까웁게 접근하는 방법은, 초대교인들이 그리스어 문법에 비추어서 글을 쓰고 읽고 영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고, 그리스어 문법에 비추어서 독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타 설교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설교를 만드는 그 방법이, 물론 고도의 그리스어 독해력을 필요로 하지만, 많은 교회와 영혼들에 새로운 꼴을 먹이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들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보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끝.

